

# 제6회 한용교포장인상



## 제6회 한용교포장인상 수상자

연구개발부문	박동욱	(주) 수텍 R&D센터 책임연구원
생산품질관리부문	조동기	(주) 팔기 생산부 차장
수출진흥부문	장형순	삼영잉크페인트제조(주) 대표이사
영업관리부문	정덕영	유상공업(주) 영업본부 부장
장학생부문	김지원	경북과학대학 포장개발학과 1년
장학생부문	박성근	신성대학 포장시스템과 1년
장학생부문	김지연	용인송담대학 제지패키징시스템과 1년



## 제6회 한용교포장인상 시상

'96년 10월 한용교 (사)한국포장협회 명예회장 [현 (주)원지산업 대표이사]이 조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한용교포장인상 제6회 시상식이 지난 달 25일 '포장인의 날'에 있었다.

수상 전년도 포장업계 각 분야별로 우수한 실적을 보인 포장인을 대상으로 시상되는 한용교포장인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업계 최고 권위의 시상 제도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한편 이번 제6회 시상식에서는 5개분야 7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는데 경영부문에는 해당자가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본 지에서는 제6회 한용교포장인상 각 부문별 수상자들의 활동상을 소개한다.



#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생산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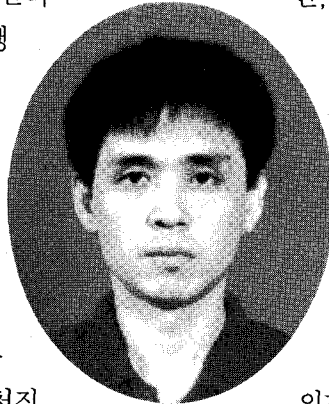
## 현장경험으로 품질개선통한 고객만족 피할 터

조동기 / (주)팔기 생산품질관리 차장

**제** 6회 한용교 포장인상 품질관리  
부분에는 조동기 (주)팔기 생  
산품질관리 차장이 선정됐다.

조동기 차장은 “국내·외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석유화학 업  
종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는  
마음이 무거운 한 해가 시작된  
이러한 시점에서 한용교포장인  
상 품질관리 부문에 선정되어 기쁨  
니다. 그간 힘든 환경으로 인해 처진  
어깨에 다시 힘을 불어 넣어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라며 “이번 수상은 저 뿐 아니라  
함께 한 동료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수상이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주)팔기는 2001년부터 무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직원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  
율적인 생산을 하도록 한 것으로 철저한 검사  
를 시행했을 때 보다는 오히려 불량률이 현저  
히 낮아졌으며 생산성도 높아졌다. 뿐만 아니  
라 식사시간 교대 근무, 누수·누기·누유 차



단, 월요일 조기 예열, 정기적인 급  
유, 설비의 주기적 정비, 싸이클  
링 타입 단축 등을 추진해 설비  
종합효율을 높였다.

“작업환경을 개선해서 작업  
효율을 높이고 여유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작업환경 개선  
과 꾸준한 점검이 생산품질과  
직결되므로 직원 개개인의 개선  
의지가 높아질수록 효과가 크게 나  
타났습니다. 개선과 점검을 습관화하는 것  
과 직원의 개선의지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조 차장은 말했다.

따라서 현재 품질관리 전담 부서는 따로 두  
고 있지 않으며 현장 각 조 반장이 제품 검사  
를 1일 주간 2번, 야간 2번 실시하고 있다.

(주)팔기는 동종 업계와 비교해 생산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  
다. 규모에 비해 최소의 인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 여건에 따라 여러 일을 담당하다 보니  
힘든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를 통해 직원간의

협력심과 화합심이 더욱더 발휘되고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두가 회사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협력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조 차장은 설명했다.

(주)팔기의 품질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조동기 차장은 1980년 군 제대와 함께 그 해 10월 (주)팔기에 입사했다. 이후 1984년에는 4년 동안 사출기를, 1985년부터 1988까지 3년간 블로우기 진공 성형기를 담당하며 실무를 쌓아왔다. 그러다 지난 2001년 생산 품질관리의 기계 운전 및 관리를 총괄하게 됐다.

조동기 차장은 약 20년이 넘게 실무를 쌓아오며 현장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의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주)팔기의 주요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동기 차장은 그간 (주)팔기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999년 화재를 꼽았다.

“1999년 예상치도 못하게 공장에 불이 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제조업이든 납기일은 생명과도 같은 터라 그런 와중에도 납기일을 맞추려고 별판에 천막을 치고 기계를 돌려 제품을 생산해 냈습니다. 또한 불에 타 없어진 현장을 복구를 해야 했으므로 휴일은 물론 밤이 늦도록 작업을 진행해 완전히 복구하는데는 1년이 걸렸습니다”라고 회상하며 “비록 힘든 시기였지만 이러한 계기를 통해 직원들간의 숨은 저력과 애사심, 동료애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 정부는 플라스틱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2002년 7월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차장은 “신소재 개발에 적극적으로 관심과 투자로 환경에 무해한 플라스틱을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며 재활용을 통해 자원으로 재이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환경부는 대체재로 종이류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종이류는 사용이 불편함은 물론 합성수지 포장재의 환경성 및 경제성에 대한 전 과정 분석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체할 종이 포장재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나무를 베어야 하며, 그 만한 나무를 심고 가꾸려면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조 차장은 강조했다.

앞으로 (주)팔기는 품질관리에 있어서 Blow실과 진공 성형실을 구분할 계획이다. 공간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막고 진공분쇄기의 소음과 분진 발생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QC 전문 요원을 확보를 통해 QA체제를 확립한 후, 신기능 Blow 용기 개발에 주력할 것이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Q.S.D를 생활화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조 차장은 설명했다.

(주)팔기의 품질관리를 총괄하며 숨은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조 차장의 열정이 국내 동종업계의 본보기가 되길 바라며 (주)팔기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해 본다.

권해진 기자



# 고객 만족 영업 통해 업계 발전 꾀해

## 신소재 개발로 국내 포장 시장 확대 목표

정덕영 / 유상공업(주) 영업본부 부장

**제** 16회 한용교포장인상 시상식에서 유상공업(주) 정덕영 영업본부장이 영업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포장업계에 근무했다는 데 해 그 어느 때보다도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한용교 회장님과 유상공업의 신동수 사장님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덕영 부장은 “이번 시상으로 책임감이 주어진 만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지난 1979년부터 85년까지 롯데제과 자재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포장계에 입문하게 됐다는 정 부장은 유상공업에 입사하면서 본격적으로 포장맨으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그는 포장이 어떤 타 분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종합예술이라고 강조한다.

기계분야를 비롯한 화학, 컴퓨터, 정밀공학뿐 아니라 디자인 학문과도 연계돼 유기적으로 결



합된 산출물이 바로 포장이라는 것.

정덕영 부장은 “포장은 단순하게 제품 보호의 목적이 아닌 최종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만족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자신은 종합예술인 포장의 매력에 흠뻑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털어놓는다.

지난 1990년 유상공업에 입사한 이래 정 부장은 편중된 업종에 치우치던 연 포장 영업부문을 다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를 통해 그는 매출증대라는 기업의 목표에 이바지 했다.

정덕영 부장은 특히 그라비아 업종의 한계를 탈피하고자 제과 뿐 아닌 만두를 비롯한 각종 식품군으로 확대해갔을 뿐 아니라, 종이컵 시장을 육성하고 전자제품 봉투 개발에도 전력을 다했다. 뿐만 아니라 수입에 의존해왔던 포장재를 국산화 대체함으로써 국내 시장에 변화를 꾀하려 노력했다.

“내가 만든 포장재가 고객 욕구에 부합하도록 고객 만족을 위한 피드백 작업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정 부장은 직원들에게도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유상공업이 거래하는 포장재의 시장 유통 과정을 모니터 하면서 유저(User)층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선된 제품으로 유저와의 유기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힌다.

정덕영 부장은 지난 2002년도 연포장 부문 표준가격 결정 전형위원으로 참석한 바 있다. 그는 “전형위원회를 통해 공정거래 가격 산출 도입을 유도하고 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를 수립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됐다”고 밝히면서 “영업을 할 때 원가 개념을 이해해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덕영 부장은 연포장 관련 중소 영세 기업의 난립으로 가격 파괴가 조장되고 시장 질서가 무너지는 포장 업계를 바라보며 과당경쟁을 자제해 시너지 효과를 통한 상생 관계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과당경쟁에서 야기되는 가격파괴가 결국은 품질저하 문제를 불러일으킨 것 같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또한 정 부장은 포장업계 종사자의 전문성 결여 문제를 지적했다.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품질 경영에 장애가 오고 신소재를 도입한다 해도 유지관리 인력문제

에서 애로를 겪는 것 같습니다. 전문기술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증설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당국과 포장 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포장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이 마련됐을 때 국가경쟁력이 비로소 상승될 것이라고 말한다.

정덕영 부장은 올 2003년 연포장 부문 매출 목표 300억을 달성할 계획을 세우고 서남아시아 쪽으로의 수출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또한 2004년부터 폐기물 종량제가 실시되는 것을 감안해 신소재 및 친환경적 소재를 응용한 포장재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나라의 포장산업의 수준은 그 나라의 문화 수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과학과 예술적 가치로 승화된 포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덕영 부장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영업 업무가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간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묶어줄 수 있었던 ‘기분좋은 웃음’이었다고 밝힌다.

‘포장은 종합예술’이라고 강조하는 정덕영 부장. 포장에 대한 애착과 친환경적 신소재 기술 개발 욕구로 정 부장이 이끌어 나갈 2003년이 주목된다. ☞

박초혜 기자



# 최고의 제품 생산으로 신시장 개척에 주력

## 철저한 사후 관리 통한 신뢰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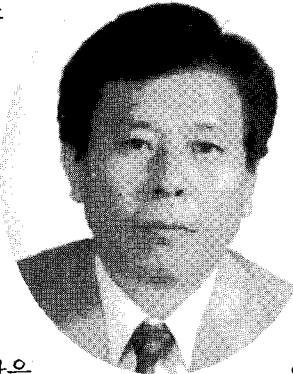
장형순 / 삼영인크페인트제조(주) 대표이사

**제** 16회 한용교포장인상 수출진흥부문  
에 장형순 삼영인크페인트제조  
(주)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우선 이러한 뜻깊은 상을 주신  
한용교 한국포장협회 명예회장을  
비롯해 김선창 회장님, 협회  
관계자 그리고 회원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  
영광을 삼영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라며 장형순 사장은 소감을  
전했다. 삼영인크페인트제조(주)는 품질향상  
과 철저한 납기일 엄수를 통한 고객 신뢰는 물론  
삼영만의 전략을 통해 340만불 수출을 기록하며  
국내 수출 진흥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삼영을 일본의 최대 인크회사인 도요인크사와  
합작 설립돼 선진 기술을 토대로 이를 국내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기술로 전환, 세계속에  
인정받는 인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삼영인크페인트(주)를 이끌고 있는 장  
사장은 성균관대 화학공학을 졸업하고 1973년  
(주)롯데알미늄에 입사, 포장 분야만 30여년 이



라는 짧지 않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론과 실무를 두루 갖춘 전문 경영  
인이다. 장 사장은 여느 경영인  
과는 달리 자신의 분야 뿐 아니  
라 관련 분야의 체계적인 이론  
과 실무를 갖추고 확고한 자신  
만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처음 (주)롯데알미늄에 입사  
할 당시 포장 기술이 전혀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인 터라 이를 체계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일본  
의 선진화된 기술을 토대로 연구개발을 해야 했  
던 그 당시 영어 외에 일어까지 구사해야만 했  
기에 개인 시간을 일어공부에 투자해 처음부터  
꼼꼼히 배워 나갔습니다”라며 장 사장은 그 당  
시를 회상했다.

영어와 일어를 겸비한 장 사장은 롯데알미늄  
에 입사한 지 3년 후 연수 차 3개월 간 일본을  
방문하게 됐다.

선진화 된 포장기술을 보고 국내 낙후된 포장  
기술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낀 장 사장은 그 길로

돌아와 포장재 연구개발에 주력해 국내 포장산업의 발전에 일익 담당한 바 있다. 이렇게 24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1997년부터는 삼영인크페인트제조(주)를 이끌고 있다. 장 사장이 삼영인크페인트제조(주)를 이끌어 오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낀 것이 바로 인력난이라고 한다.

“제조업이라 하면 열악한 환경과 힘든 작업을 떠올리게 되어 젊은이들은 많이 꺼려합니다.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했으나 직원간 이동이 많아 전문인력이 부족합니다”라며 제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 시장은 과잉경쟁으로 인한 포화 상태로 제값 받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잉크제조업은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므로 영세한 기업과 경쟁을 새로운 시장인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영은 중국, 일본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수출의 성장 곡선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삼영만의 수출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나라를 상대로 제품 수출하려면 그 나라의 특성과 문화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령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의 경우 남녀 차별이 없어 임원의 대부분이 여자들인 점을 감안, 제품에 있어서 세심하고 꼼꼼함을 고려해야 합니다”라는 장 사장은 각 수출국을 수시로 방문해 직접 체험하고 느끼려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 제품의 품질은 물론 규격과 제품 납품 후 사용하기까지 모든 공정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까다로운 일본이라 해도 삼영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100%의 신뢰를 얻고 있어 클레임 없는 제품으로 자리잡고 있어 이제는 따로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넓은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은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낙후된 기술력으로 인해 국내 선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든 제품이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장 사장은 “중국을 예전의 모습만을 생각해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중국이 최첨단 잉크 설비가 갖춰지고 이를 통한 좋은 잉크 제조로 오히려 이제는 중국에서 국내로 역수입할 날이 머지 않았습다”라며 “때문에 신시장 개척은 물론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한 최고의 제품을 선보이고자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고객 만족을 꾀하는 삼영은 대부분의 업체가 행하는 A/S(After Service)는 물론 더 나아가 B/S(Before Service)를 통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고한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 사장은 “포장과 원부자재가 함께 발전해야 하며 특히 환경 친화적 잉크 개발은 물론 체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 동종 업계간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삼영은 지난해 340만불을 기록, 올해는 400만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은 물론 동 업계간의 협력을 통해 WIN-WIN 할 수 있길 바란다는 장 사장의 과감한 시장 개척을 통해 국내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길 기대해 본다.

권해진 기자





# 종이컵 검사 장비 국산화에 성공

## 전문화된 기술인으로 연구개발 주력할 터

박동욱 / (주)수택 R&D 책임연구원

**포** 이번 제6회 한용교 포장인상 연구 개발부문 시상식에서 (주)수택 R&D팀의 박동욱 책임연구원(과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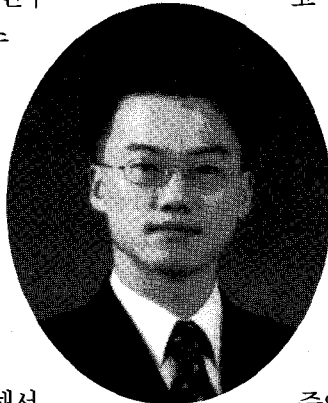
“제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닌 (주)수택의 연구원 모두가 수상하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과 소장님, 그리고 전 직원들과 함께 기쁨을 같이하고 싶습니다.”

박동욱 과장은 “(주)수택을 대표해서 받는 상”이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대학졸업 이후 박 과장은 프로그래머로서 사회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된다.

그는 3D계측기, 카메라를 비롯한 의학계통의 업무를 하던 중 기계와 장비를 함께 연동시킬 수 있는 통합 작업을 하고 싶어 (주)수택에 입사하게 된다.

(주)수택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의 투자를 밝히면서 (주)수택의 가족이 될 수 있었다는 박동욱 과장. 그는 “무엇이든 적극적인 사고로 임하면 안되는 것이 없다”



고 강조한다. 그가 입사했을 당시, (수)수택의 연구소에서는 종이컵 검사 장비 개발에 이미 착수, 개발된 장비가 거쳐야 할 현장 테스트의 업무가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포장업계에 처음 입문한 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힘든 것이 나중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과

비전 업계에서 검사장비들의 솔루션은 비슷하다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뛰어들었습니다.”

박 과장과 수택R&D 팀의 종이컵 검사 장비의 개발 및 테스트 업무 결과 (수)수택의 Safe Cup은 국내 포장업계 종이컵 라인의 전자동화에 기여하게 된다.

(주)수택의 종이컵 검사장비는 100%실시간 제품 검사 및 불량컵 제거에 효과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특히 이 장비는 기존에 수작업으로 종이컵 검사를 했을 경우 분당 60개의 검사량

에서 분당 250개로 고속 정밀 결점 검사를 가능하게 한다. 태양광과 가장 유사한 크세논 램프를 도입, 고휘도 조명을 사용해 기존의 LED가 지녔던 확산조명에서 탈피해 빛조절이 가능케 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 또 현재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1000cc이상의 대용량컵 검사도 가능해져 다양한 용량의 컵 검사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부터 시행된 PL법 시행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클레임을 반감,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작업공정을 개선하고 있다.

박동욱 과장은 전체9개 생산라인의 불량에 대한 수동검사와 자동검사를 비교한 결과 종이컵 자동검사시스템 도입 후 차년도부터 약 1억 원 가량 비용절감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검사 및 포장인원 감소로 원가를 절감했을 뿐 아니라 잉여 인력을 활용하기에도 효과적이었다는 것. 그는 종이컵 검사기를 설치한 업체로부터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여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가장 뿌듯하다고 밝혔다.

현재 박동욱 과장은 포장업체에 종이컵 검사장비를 설치 할뿐만 아니라 현장 트러블을 해소하는 등 AS업무까지 실천하며 열심을 다하고 있다.

국내 포장산업이 여전히 3D업종으로 치부되는 현실을 바라보며 그는 작업환경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 같다고 밝힌다.

“좋은 장비, 최신의 장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급 장비와 함께 맞물려 조화될 수 있는 작업 환경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주)수텍의 종이컵 검사장비가 열악했던 포장산업 환경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 과장은 앞으로 기술 개발품목의 대량화 보다는 전문화된 기술인으로 업계에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면서 종이컵 검사장비에 이어 인쇄물표면 검사장비의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인쇄물 검사장비 ST-C100은 인쇄작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생산되고 있는 인쇄물의 품질을 감시하고 수정이 가능하게 해, 효율적인 인쇄물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제품 업데이트와 함께 장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율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질과 환경에 대한 문제가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과장은 포장산업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와 포장관련 단체들의 역할이 여느때보다 중요한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진정한 포장의 매력을 파악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다는 박 동욱 과장.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그가 더 나은 포장관련 통합장비 시스템의 개발로 업계에 일익을 담당하길 기대해 본다.

박초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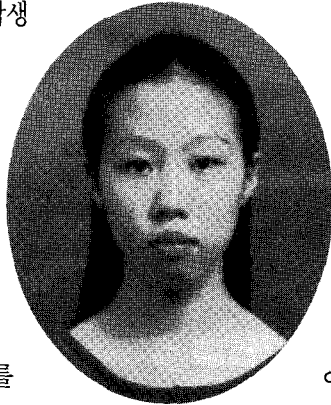


## 전문 포장인이 될 터

### 포장에 대한 인식 전환 시급

김지원 / 경북과학대학 1년

**제** 6회 한용교포장인상 장학생 부문에 경북과학대학 포 개발 재학중인 김지원 학생에게 영광이 돌아갔다. "이번 수상을 통해 더욱더 학업에 충실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김지원 학생은 소감을 밝혔다.



김지원 학생이 처음 포장학과를 선택한 것은 포장이라는 분야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경북과학대학 교수님들의 설명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포장이라는 용어조차 너무나도 생소했기에 처음에는 포장학과 진학을 포기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포장의 전반적인 동향과 포장의 중요성에 대해 교수님들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라며 "포장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에 보답하도록 학업에 더욱더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김지원 학생은 포장에 대해 많은 흥미를 느낀다고 한다.

현재 학업 중에 있는 김지원 학생은 현 포장 산업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점은 포장 분야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꼽았다.

"아직은 포장 실무를 직접 경험하지 못해 직접적인 현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어떠한 분야나 마찬가지로 그 분야의 발전은 이끌어 나가는 전문 인력들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때문에 포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전문 인력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김지원 학생은 강조했다.

국내 포장 분야가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고는 하나 세계적인 포장 국가로 자리 매김 하려면 정부와 관련 단체, 업계의 상호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관련 단체에서는 업계가 좀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 수행하며 업계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고객 만족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년 가량 남은 학업에 충실해 튼튼한 이론을 쌓고 그 후에는 아직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포장 분야에 실질적으로 동참해 전문 포장인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김지원 학생의 바람대로 미래 포장 산업의 주역으로 활약할 모습을 기대해 본다.

권해진 기자



## 친환경 포장재 개발에 일익 담당 할 터

포장 전시회 통해 경험 쌓아갈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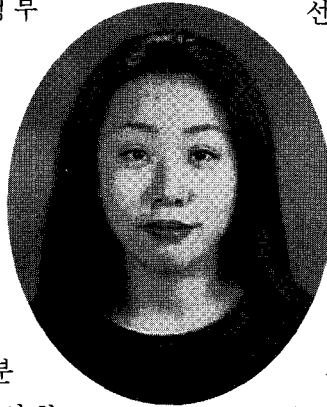
김지연 / 용인송담대학 제지패키징시스템 1년

**제** 6회 한용교 포장인상 장학생 부문을 수상하게 된 김지연 학생은 “포장학에 더욱 매진하여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주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지패키징시스템’이라는 학문이 들어보지 않았던 생소한 과이기도 하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분야란 생각으로 입학하게 됐다는 김지연 학생. 그녀는 입학 초기, 우연히 경험하게 된 포장박람회 통해 포장에 대한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박람회에 전시돼 있는 수많은 포장재들과 정교하게 제작된 포장관련 장비들을 직접 보면서 포장이란 것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포장과 관련되지 않은 산업은 없다고 말하는 김지연 학생. 그녀는 “기업이 세계화 될 수 있는 토대는 포장표준화 실천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포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포장을 알면 알수록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함을 느끼게 되고 그런 중요한 학문을 택한 자신의



선택이 헛되지 않음을 깨달을 때마다 보람을 느끼긴다고 밝혔다.

김지연 학생은 특히 친환경적인 포장재 개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그녀는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친환경 포장재 개발이 시급하다”고 당차게 말하면서 “자원순환이 가능한 포장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지연 학생은 포장이 매력을 가진 학문임에도 문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관련 정보가 부족함을 느낄 때 가장 아쉬움을 느낀다.

포장분야에 대해 처음 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호기심을 가질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가 많이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김지연 학생. 그녀는 기회가 닿는대로 포장 관련 전시회를 통해 전문을 넓혀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친환경 포장재 개발로 업계에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고 밝히는 젊은 포장학도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박초혜 기자



## 체계적인 이론 갖춘 전문 포장인으로

포장이론 적극적으로 쌓을 터

박성근 / 신성대학 포장시스템 1년

**이**번 한용교포장인상 장학생 부문  
에 선정된 또 다른 주인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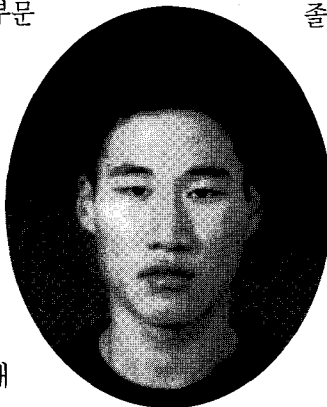
박성근 학생은 신성대학 포장시스  
템과 1학년에 재학중이다.

“먼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상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많은 지도  
와 편달을 해 주신 교수님들께도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소감을 대  
신했다.

박성근 학생이 주위에서 포장에 대한 중요성에  
듣고 지금의 신성대학 포장학과를 지원하게 됐다.

“처음에는 포장에 대해 많은 생소함으로 인해 크  
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포장학  
과에 진학해 포장에 대해 좀더 세부적으로 배우다  
보니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과 흥미를 느끼게 됐  
습니다”라고 말했다.

박성근 학생은 “아직은 포장에 대해 감히 말할  
순 없지만 포장이라는 분야가 모든 산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  
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때문에 “학업에 충실하고



졸업 후에도 포장분야의 전문가인 포장  
쟁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고 한다.

평소 박성근 학생은 수업 중에  
배운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교수님을 찾아가 물어보거나 관  
련 서적을 찾아 볼 만큼 적극적인  
학업 자세로 임하고 있다.

“주위 일상 생활에 있어서 포장이 안  
쓰인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생활에 밀접

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포장학과에 진학해 배움을  
통해 포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으며 시작이야 어  
떻건 간에 포장이라는 분야에 큰 흥미를 느낀다”는  
박성근 학생은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 포장  
발전에 한 몫 하는 주역이 되고 싶다고 한다. 졸업  
후에도 좀더 체계적인 이론 지식을 쌓고 싶다는 박  
성근 학생은 포장 분야에 있어서 최고가 되고자 최  
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한다.

박성근 학생의 적극적인 배움의 자세를 통해 포  
장 산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권해진 기자